

# 《미래로(走向未來)》는 어떻게 출판이 가능했나?

— 새로운 사조(思潮)의 출현 기제에 대한 연구

김도경\*

## <목 차>

1. 문제제기: 《미래로》의 출판과 정치적 환경 사이의 모순
2. 기존 연구 검토: 담론 중심 분석과 조건 중심 분석
3. 연구방법: 실패와 성공의 사례 비교
4. 《미래로》의 출판 조건: '제휴'의 정치적 자원
  - 4.1. 《청년문고》의 사례
  - 4.2. 《미래로》의 사례
  - 4.3. 소결: '제휴'의 정치적 자원
5. 기회 구조의 형성과 잠재적인 동조자의 편재
6. 나가며

## 1. 문제제기: 《미래로》의 출판과 정치적 환경 사이의 모순

1983년 11월부터 1984년 6월까지 쓰촨(四川) 인민출판사는 순차적으로 총 12권으로 된 총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진관타오(金觀濤)의 《역사 표상의 배후(在歷史的表象背後)》와 같은 저서도 있었고,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增長的極限)》와 같은 역서도 있었으며, 《경제통제론(經濟控制論)》과 같은 편저도 있었다. 대부분 서구의 학술성과를 소개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새로운 내용이 많았다. 이 총서는 출판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쇄를 찍었고, 전체 발행

\*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조교수

부수가 160여 만부에 달하였다.<sup>1)</sup> 당시의 열악한 출판 환경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성공이었다. 이 총서가 바로 1980년대 중국 ‘문화열’을 선도했던 《미래로(走向未來)》 총서였다.

그런데 이 《미래로》 총서의 등장은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미래로》 총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제도권에 등장한 첫 번째 ‘민간’ 성격의 출판물이었다. 《미래로》 총서를 발행한 것은 쓰촨 인민출판사였지만, 그 기획과 편집을 담당한 것은 출판사 외부에 꾸려져있던 별도의 편집위원회였다. ‘3급심’으로 대표되는 검열 시스템이 여전했음에도, 그 총서의 편집위원회는 나름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물론 《미래로》 총서 이전에 그와 같은 성격의 출판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오논단(四五論壇)》이나 《탐색(探索)》, 《오늘(今天)》 등, 1970년대 말 베이징(北京)에 ‘민주의 벽’ 운동이 출현하였을 때, 다수의 ‘민간’ 잡지가 발행된 적이 있었다.<sup>2)</sup> 그러나 이 잡지들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밖에 위치해 있었고,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강제로 폐간되었다. 《미래로》 총서는 이후에도 자신의 시리즈를 네 번이나 더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그 총서가 이전의 민간 잡지와는 달리 ‘합법’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80년대 초의 정치적 분위기가 이 총서를 발간할 수 있을 만큼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1979년 네 가지 기본원칙이 제기된 이후, 1982년에는 바이화(白樺)의 《슬픈 사랑(苦戀)》에 대한 비판 운동이 일어났고, 1983년에는 왕뤄수이(王若水) 등에 대한 ‘정신 오염 정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미래로》 총서 출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토로했다. 편집위원 중 한 명이었던 류칭핑(劉靑峰)은 정신 오염 정화 운동이 전개되던 그 순간에 총서의 첫 번째 책이 인쇄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었는지

1) 楊忠學, 《我與書》(澳門: 國際港澳出版社有限公司, 2011), 138쪽.

2) 이에 대해서는 許行, <中國民間的屈起和掙扎圖存>, 《中國民辦刊物彙編》(香港: 香港觀察家出版社, 1981); 김도경, <1970년대 말 천얼진의 ‘무산계급 민주혁명을 논함’의 담론 맥락>, 《중국현대문학》 66호 (2013) 등을 참조.

를 덧붙였다.<sup>3)</sup> 쓰촨 인민출판사에서 《미래로》 총서의 출판을 담당했던 덩 싱잉(鄧星盈) 역시 총서 출판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경직되고 교조적인 사상을 꼽았다.<sup>4)</sup> 같은 출판사에서 편집에 관여했던 푸스티(傅世悌)도 《미래로》 총서가 네 가지 기본원칙과 대립할 여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다고 소회했다.<sup>5)</sup>

실제로 그 위험을 느끼게 해준 일화도 있었다. 《미래로》 총서를 주도했던 진관타오는 그 전에도 비슷한 총서의 발간에 관여한 적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삼련서점(三聯書店)과의 협업이었다. 진관타오를 비롯한 몇몇 청년 지식인들은 삼련서점 주원 판용(范用)의 지원 속에서 1980년 12월 《역사의 사색(歷史的沈思)》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중국 봉건사회의 장기 지속에 관한 진관타오와 류칭평의 글도 수록되어 있었고, “청년 문고(青年文稿)”라는 표제 속에 다음호의 예고편도 담겨 있었다.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미래로》 총서와 대단히 흡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책은 불법 출판물로 간주되었고, 예정되었던 출판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다. 당시 편집을 맡았던 삼련서점의 스메이(史枚)는 이에 불만을 품고 출판 당국에 항의했지만, 도리어 가혹한 비판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미래로》 총서가 어떻게 출판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스메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는 새로운 내용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었다. 게다가 1983년에는 대대적인 정치 운동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총서가 출판되었다면, 그리고 그 시리즈가 1988년까지 지속되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과연 《미래로》 총서는 그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어떻게 출판될 수 있었을까?

3) Cheng Yingxiang, 《Dégel de l'intelligence en Chine, 1976-1989》 (Editions Gallimard, 2004), 364쪽.

4) 陳麗芳, 《“走向未來”叢書出刊研究》 (西南交通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96쪽.

5) 傅世悌, <一切爲了飢渴者和盜火者——對《走向未來》叢書的一點回顧和思考>, 《中國出版》 第10期(1986), 32쪽.

## 2. 기존 연구 검토: 담론 중심 분석과 조건 중심 분석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가령 개방으로 인해 외래문화와의 접촉이 늘어났고, 이것이 경제 인식 및 가치 관념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정치적 환경 변화가 문화 관념의 변화를 초래한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혹은 문혁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그 역사적 반성의 목소리를 강조할 때도 있다.<sup>6)</sup> 어떤 경우이든,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 모종의 변화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목소리가 출현했다고 보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종의 담론 중심의 설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전제가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고민해야 할 내용이 바뀐다고 보기 때문이다. 테리 이글턴은 “문화적 관념은 그것이 고민해야 할 세계와 함께 변화”한다고 주장했다.<sup>7)</sup> 따라서 오사(五四)시기에나 나올법한 ‘계몽’이나 ‘봉건성’이 1980년대 중국 사회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오사 시기나 개혁개방 직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미래로》 총서는 논의의 틀에서 사라지고 만다. 《미래로》 총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이른바 ‘시

6)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단히 많다. 가령 周庚鑫, 吳松主編, 《歷史的必然與時代的坐標》(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2), 제11장 3절: 宗勝利, <80年代“文化熱”研究綜述>, 《理論前沿》第16期(1996); 胡安全, <改革開放初期社會意識的嬗變與執政黨的思想建設>,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6期(2008); 王學典, <“80年代”是怎樣被“重構”的?>, 《開放時代》第6期(2009); 황희경, <철저재건론자들의 중국문화 탐색>, 《시대와 철학》제3호(1992); 양태근, <1980년대 중국 문화열의 재발견과 현장>, 《중국현대문학》제43호(2007); 송인재, <1980년대 중국지식계의 ‘계몽기획’과 ‘계몽 성찰’>, 《시대와 철학》제19권 4호(2008) 등을 참조.

7) Terry Eagleton, 《After Theory》(New York: Basic Books, 2003), 23쪽.

대정신(zeitgeist)'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어도 그와 비슷한 사조는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설명되는 것은 기껏해야 《미래로》 총서가 출판될 수 있었던 배경에 불과하다. 그것이 출판될 수 있었던 기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면, 왜 하필 《미래로》 총서였고, 왜 하필 진관타오 그룹이어야 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당시의 정치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달랐기에, 《미래로》 총서는 1980년대 중국 '문화열'을 이끌 수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설명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접근 태도가 조건 중심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분석적인 차원에서, 《미래로》 총서가 출판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조건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로》 총서에 대한 기존 연구 중에는 당시 출판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초부터 중국 정부는 출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지방 출판사들은 다양한 출판물을 기획해야 했고, 그 맥락에서 《미래로》 총서의 출판도 가능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sup>8)</sup> 천팡썩(陳方正)의 연구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진관타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중국사회과학원 청소년연구소에 있던 탕뤄신(唐若昕)과의 만남이 《미래로》 총서의 출판에서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탕뤄신의 도움 속에서 총서 출판이 청소년연구소의 공식 사업이 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간섭을 우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9)</sup>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 운동(social movements)에 대한 이해와 닮은 면이 있다. 사회 운동에 대한 연구는 '동원(mobilization)'의 관점에서 다뤄질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 불만이 언제나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특정 조건에서만 사회적 불만은 사회 운동으

8) 任新·欣悅, <《走向未來》叢書給我們什麼啓示?>, 《編輯學刊》第4期(1986); 陳麗芳, 앞의 책.

9) Chen Fong-ching & Jin Guantao, 《From Youthful Manuscripts to River Elegy》(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7), 106쪽.

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화적 요구가 언제나 항상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엽,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계몽'과 '봉건'을 이야기하였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처음 공식화시켰던 것은 진관타오 그룹의 《미래로》 총서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의 틀에서는 이른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허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조건이 중요한 이상, 그 시대의 문화적 요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혹은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는 분석 범위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관념적"<sup>10)</sup>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문화열'을 과연 그 시대의 문화적 요구와 상관없는 것처럼 다룰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진관타오 그룹은 《미래로》 총서를 출판하기 전에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열정을 과연 "관념적"이라는 말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까? 혹은 "문화열"의 또 다른 축이었던 중국문화서원(中國文化書院)의 강연 활동이나 《문화: 중국과 세계(文化:中國與世界)》 총서도 당시에는 《미래로》 총서만큼이나 상당한 성공을 거뒀는데<sup>11)</sup>, 이러한 시대적 열기를 과연 논의 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까? 《미래로》 총서가 '1980년대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다면<sup>12)</sup>, 《미래로》 총서의 구체적인 출판 조건에만 매몰되는 것은 자칫 기계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상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종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먼저 분석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미래로》 총서가 출판되는 데 핵심적인 조건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담론 중심의 설명 방법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조건이 확보될 수 있었던 맥락을 추적함으로써 자칫 기계적인 분석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피할 것이다. 요컨대 이른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조

10) Scott Frickel·Neil Gross, <A General Theory of Scientific/Intellectu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2005(70), 213쪽.

11) 徐友漁, <我對80年代“文化熱”的回顧>, 《人物》 第5期(2011).

12) 馬國川, 《我與八十年代》(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1), 160-175쪽 참조.

건으로서 새로운 사조의 출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래로》 총서가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제휴(掛鉤)'의 정치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천광평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런데 진관타오 그룹이 이 핵심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원 동원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치적 자원은 그들 외부에서 그들에게 '우연찮게' 주어진 것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시대정신'이 어떻게 구체적인 조건으로 자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비슷한 문화적 요구가 어느 정도 공유된 상황에서는 그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sup>13)</sup>가 형성되기 쉽다. 만약 '시대정신'이 어떤 새로운 사조를 낳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기회 구조'라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 3. 연구방법: 실패와 성공의 사례 비교

《미래로》 총서가 출판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조건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실패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조건을 특정하기가 용이해진다. 그런데 《미래로》 총서는 이후의 많은 총서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된 사례이다. 즉 당시의 총서 출판에서 실패의 사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출판이 무산되면 관련 기록 역시 희미해진다. 설령 실패의 사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가 힘든 것이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미래로》 총서 이전에 그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진관타오는

13)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8)을 참조. 문화적 기회 구조에 대해서는 김도경, <개혁개방 시기의 문화적 기회 구조>, 《중국학논총》 제59집(2018) 참조.

《미래로》 총서를 내놓기 전에 《청년 문고》의 출판에도 관여한 적 있다. 그렇다면 《미래로》 총서를 《청년 문고》에 견줘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두 출판물이 겪은 과정을 서로 비교해본다면, 《미래로》 총서가 《청년 문고》와 어떤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고, 그 지점이 바로 《미래로》 총서가 등장할 수 있었던 조건일 수 있다.

비교의 대상은 정해졌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 비교할지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교 지점을 한정하지 않는다면, 자칫 끝도 없이 그 차이만 나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존 연구는 새로운 사조의 형성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 밝혀주고 있다. 대략 네 가지 정도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데<sup>14)</sup>, 첫 번째는 누가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가이다. 기존의 사조를 의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사람은 적어도 그 '의심'과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자격이 부족함에도 '의심'과 '대안'을 제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자칫 '헛소리'로 치부당할 수 있다.<sup>15)</sup>

두 번째는 중요 자원의 동원 여부이다. 가령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유포가 불가능해진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 자원으로 판단되는데, 하나는 출판사의 동원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검열의 회피 여부이다. 출판사와 함께 작업할 수 있어야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고, 정치적 검열을 회피할 수 있어야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sup>16)</sup>

세 번째는 네트워크이다. 새로운 사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동조자를 확보한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동조자

14) Scott Frickel · Neil Gross, 앞의 책.

15) Steven Shapin, 《A Social History of Truth: Civility and Scien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6) John H. D'Arms, <Funding Trends in the Academic Humanities, 1970-995: Reflections on the Stability of the System>, 《What's Happened to the Humanities?》 edited by A. Kern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를 찾을 수 있지만, 1980년대 중국 사회에서는 동조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는지, 혹은 그 환경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가 새로운 사조의 형성에서 중요할 수 있다.<sup>17)</sup>

마지막 네 번째는 프레임이다. 이는 위의 동조자 모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동조자를 모집하기 위한 환경이 아무리 안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의심'과 '대안'이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지지가 아니라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에서 학술 그룹 내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공감보다는 거부감을 유발하기가 쉽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잠재적인 동조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프레임에 맞춰 논의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동조자를 확보하게 된다.<sup>18)</sup>

이상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두 번의 출판 시도가 서로 어떻게 달랐는지가 4장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분석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 조건이 어떻게 갖춰지게 되었는지의 맥락이 간과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로》 총서가 힘입고 있던 그 조건이 사실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와 성공의 사례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이 특정되었다면,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다시 헤아릴 필요가 있다. 5장에서 그 구체적인 경로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표면적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과 과정에 대한 해석<sup>19)</sup>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미래로》 총서가 출판될 수 있었던 기제, 나아가 새로운 사조가 형성되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맥락을 좀 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17)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Social Movements>, 《Handbook of Sociology》, edited by Neil J. Smelser, (Beverly Hills, CA: Sage, 1988).

18) Rhys H. Williams and Timothy J. Kubal. <Movement Frames and the Cultural Environment: Resonance, Failure, and the Boundaries of the Legitimate>.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21(1999).

19) 클리퍼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서울: 까치, 1998), 제1장 참조.

## 4. 《미래로》 총서의 출판 조건: '제휴'의 정치적 자원

### 4.1. 《청년문고》의 사례

《청년문고(青年文稿)》는 사실 진관타오가 주도했다기보다는 린춘(林春)과 리인허(李銀河)가 주도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그녀들은 본래 국무원 산하의 연구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중국사회과학원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둥 사상 연구소가 설립될 때 중국사회과학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순전히 그녀들의 자원이었다. 당시 그녀들은 국무원 산하의 연구실 환경이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린춘에 따르면, 그녀들은 《오늘》이라는 잡지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20)</sup> 게다가 새로 창설된 연구소의 소장은 저명 경제학자였던 위광위안(于光遠)이었다. 위광위안은 당시 국무원 연구실의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과 위광위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녀들이 다른 '단웨이'로 옮겨가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것이다.

린춘과 리인허는 그곳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모종의 자유를 만끽했다. 어떤 문제이든 함께 토론했고, 혼자 있을 때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나아가 연구소의 다른 젊은이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그룹 안에 진관타오도 있었다. 당시 진관타오는 중국과학원에서 《자연변증법통신(自然辨證法通訊)》의 편집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 역시 위광위안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잡지가 창간(1979)될 때의 주편이 위광위안이었고, 진관타오는 1977년의 학회를 계기로 그 창간 준비 과정에서부터 참여했다. 따라서 중국과학원의 진관타오 등이 중국사회과학원의 린춘 및 리인허 등과 교류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심지어 위광위안은 연구소 안에서 “격주 좌담

20) 林春, 《家國滄桑》(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124쪽.

회”와 같은 정기적인 토론 모임도 주관하고 있었다.<sup>21)</sup> 린춘과 리인허, 그리고 진관타오 등의 20~30대 젊은 지식인들은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청년문고》는 이러한 교류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중국의 문제를 살펴보고 싶었고, 이를 새로운 출판물 속에 담아 보고 싶었다. 실제로 《청년문고》에 실려 있는 글을 보면 ‘민간’ 출판물과 닮은 면이 많았다. 중국의 초안정 구조를 논했던 진관타오와 류칭평의 글도 그랬지만,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논했던 후핑(胡平)의 글도 마찬가지였고, 농업 사회주의를 제시했던 천핑(陳平)의 글이나 중국 가족 및 혼인 제도를 고민했던 리인허의 글도 그 경향이 비슷했다.<sup>22)</sup> 특정 영역이나 교조적인 논리에 구속받지 않은 채, 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은 위광위안과 리홍린(李洪林)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문고》의 첫 번째 책은 삼련서점 판용의 지원을 받았는데, 젊은 지식인들과 판용을 이어준 이가 바로 그들이었다. 나아가 위광위안은 정치적으로도 《청년문고》의 우산이 되어줬다. 예를 들어 위광위안이 후차오무(胡喬木)의 후임 중국사회과학원장으로 물망에 올랐을 때, 그가 받았던 비판 중 하나는 《청년문고》의 출판을 지원했다는 것이었다. 위광위안이 만약 청년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청년문고》의 출판을 막아야 했다는 것이 당시 비판의 골자였다.<sup>23)</sup>

《청년문고》는 사실 발행 부수도 5,000부에 불과했고, 그 배포 방식도 내부 출판물에 가까웠다.<sup>24)</sup> 그러나 어떠한 《청년문고》는 정식 출판물이었고, 따라서 중공중앙 선전부의 감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청년문고》는 불법 출판물로 선언되었고, 이후의 모든 출판 계획은 금지되었다. 앞서 언

21) 馬國川, 앞의 책, 166쪽; 王國強, 《二十世紀八十年代學會潮》(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 2014), 61쪽; 林春, 위의 책, 132쪽.

22) 李湘魯 외, 《歷史的沈思》(北京:三聯出版社, 1980).

23) 이에 대해서는 蘇炯, <北京春寒怪異錄>, 《爭命》 第1期(1981)를 참조.

24) 蘇炯, 위의 글, 11쪽.

급했던 것처럼, 편집을 담당했던 스메이는 가혹한 비판 속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위광위안 등의 지원을 등에 업고서 《청년문고》가 출판되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다.

#### 4.2. 《미래로》 총서의 사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1980년대 초 진관타오는 중국과학원에서 《자연변증법통신》의 편집을 맡고 있었다. 본래 그는 정저우(鄭州)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1977년의 과학 관련 학술회의를 계기로 이 잡지의 창간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sup>25)</sup> 그는 정저우 대학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자신의 전공인 화학보다 과학철학이나 중국 역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변증법통신》의 창간과 편집은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다. 실제로 그는 이 잡지가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럼에도 진관타오가 별도의 민간 출판물을 꿈꾸게 된 것은 다른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우선 그가 류칭평과 함께 저술했던 《흥성과 위기(興盛與危機)》가 1년이 넘도록 출판사에서 계류되어 있었다. 그 책에서 다뤄졌던 중국 사회의 초안정 구조는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역사 해석과 충돌할 여지가 있었고, 따라서 실제 출판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 즈음 진관타오는 18세기 프랑스의 《백과전서(Encyclopédie)》과 같은 출판물에 상당히 도취되어 있었다. 중국에 그와 비슷한 성격의 출판물을 내놓을 수 있다면, '계몽'의 차원에서 대단히 유의할 것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미래와 발전(未來與發展)》 잡지의 편집도 그에게는 일종의 동기 부여가 되었다. 《자연변증법통신》의 부편집인이었던 리바오형(李寶恒)은 중국미래학회가 발간하는 《미래와 발전》의 편집을 진관타오에게 제안한 적 있었는데, 당시 진관타오는 기쁜

2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en Fong-ching & Jin Guantao, 앞의 책, 100-107쪽 참조.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뜻을 같이하는 젊은 지식인들을 모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래와 발전》의 편집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아쉬움이 총서 출판에 대한 그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sup>26)</sup>

결국 진관타오는 출판사와 상관없이 별도의 편집 위원회부터 꾸렸다. 어차피 《미래와 발전》으로 인해 이미 꾸려진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조직 및 유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편집위에는 엔자치(嚴家其)나 바오준신(包遵信), 판홍예(樊洪業), 자신민(賈新民), 왕치산(王岐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동시에 총서를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이 때 그 길을 열어준 이가 바로 탕뤄신이다. 당시 탕뤄신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청소년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는데, 그는 진관타오 그룹의 기획을 청소년연구소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총서 출판을 연구소 사업으로 공식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진관타오 그룹을 그 사업의 외부 편집위로 공식화할 수만 있다면, 그 기획은 형식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민간 성격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탕뤄신은 진관타오를 장리첸(張黎群) 소장과 종페이장(鐘沛璋) 부소장에게 소개했다. 진관타오는 이미 허난(河南)에 있을 때부터 장리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종페이장 역시 진관타오와의 면담을 통해 그 사업의 의도와 취지에 공감했다. 그리고 종페이장은 진관타오로부터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1982년 5월, 진관타오 그룹은 공식적으로 청소년연구소 산하의 총서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쓰촨 인민출판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장리첸의 도움이었다. 장리첸은 쓰촨 인민출판사의 량옌(梁燕) 사장에게 총서 출판을 제안했고, 쓰촨 인민출판사는 두 명의 편집인을 보내어 그 제안에 화답했다. 출판사와 편집위원

26) Chen Fong-ching & Jin Guantao, 앞의 책, 107-110쪽.

회는 '3급심'을 편집위원회에서 자체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고, 아울러 출판사 소속의 편집인 한 명을 명목상의 편집 위원으로 남겨두는 데에도 동의했다. 대신 총서 출판의 수익은 대부분 출판사의 몫이 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1983년 11월 《미래로》 총서가 출판되었다.

#### 4.3. 소결: '제휴'의 정치적 자원

이상의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청년 문고》와 《미래로》 총서는 사실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참조). 가령 주도 인물을 살펴보면, 그 둘 사이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린춘 및 리인허, 그리고 진관타오는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고, 사회적 신분 역시 비슷했다. 진관타오가 《자연변증법통신》의 편집 등으로 좀 더 유명세를 났을 수는 있지만, 린춘과 리인허 역시 당시에는 만만치 않은 지명도를 갖고 있었다. 그녀들이 1978년 발표한 <민주의 발양과 법제의 강화(要大發揚民主和加強法制)>는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전재될 정도로 유명한 글이었고, 실제로 당시 그 글은 민주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진관타오와 린춘·리인허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적어도 어떤 '자격'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 둘은 구별된다기보다는 함께 묶일 확률이 높다.

핵심 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청년문고》를 출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는 위광위안과 리홍린이었다. 삼련 출판사를 소개해준 것이 그들이었고, 정치적인 우산이 되어준 것도 그들이었다. 바꿔 말하자면, 위광위안과 리홍린은 당시 중국 사회에서 그 정도의 자원 동원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비슷하게, 《미래로》 총서를 출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는 장리첸과 종페이장이었다. 쓰촨 인민출판사를 소개해준 이가 장리첸이었고, 정치적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해 준 이가 종페이장이었다. 《홍

성과 위기》가 1년 넘게 후난(湖南) 출판사에 계류되어 있었음을 떠올린다면, 장리췌와 종페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청년 문고》와 《미래로》 총서는 모두 비슷한 자원 동원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둘 모두 실제 출판으로 이어지기는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둘의 상황은 서로 비슷했다. 위광위안은 중국 사회과학원 안에서 '격주 좌담회'와 같은 모임을 주관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청년 지식인들은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청년 문고》는 사실 그러한 네트워크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래로》 총서 역시 그 사정은 비슷했다. 《미래와 발전》을 계기로 진관타오 그룹은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고, 학회를 통해 그 외연을 넓혔다. 진관타오와 탕뤄신이 처음 만났던 자리가 바로 1980년 허페이(合肥)에서 개최되었던 학회였다.

마지막 프레임에 있어서도 이 둘은 너무나 닮아 있다. 《청년 문고》의 표지는 저자가 모두 청년임을 적시하면서, “아직 미성숙하지만 결코 경솔하지 않은 이론적 탐색을 통해 선배와 동년배, 그리고 인민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미래로》 총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규정했는데, 진관타오는 종페이장과 의 면담 자리에서 중국은 오사 시기와 비슷한 계몽 운동이 필요하며, 그 동력은 청년들에게서 나온다고 피력했다. 《청년 문고》나 《미래로》 총서 모두 스스로를 청년 계몽의 프레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청년 문고》와 《미래로》의 출판 조건 비교

	《청년 문고》	《미래로》
주도 인물	린춘(林春) · 리인허(李銀河)	진관타오(金觀濤) 등
핵심 자원	삼련(三聯)서점 위광위안(于光遠) · 리홍린(李洪林)	쓰촨(四川) 인민출판사 장리췌(張黎群) · 종페이장(鐘沛璋) 중국사회과학원 청소년연구소
네트 워크	격주 좌담회 등	각종 학술회의
프레임	청년 계몽	청년 계몽

《청년 문고》와 《미래로》 총서의 출판 조건에서 유일하게 차이 나는 지점은 청소년연구소라고 하는 기구의 활용 여부이다. 《미래로》 총서는 청소년연구소의 공식 사업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고, 자체에서 '3급심'을 운영할 수 있었다. 반면 《청년 문고》는 어디까지 린춘·리인허 등의 청년 지식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사업에 불과했다. 공식 기구의 엄호가 부재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손쉽게 '불법 출판물'로 간주되었다. 공식 기구와 제휴(掛鉤)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가 《청년 문고》과 《미래로》 총서의 운명을 갈랐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의 다른 청년들이 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시 확인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문화서원인데, 1984년 《미래로》 총서의 성공을 계기로 베이징대학 철학과와 일부 강사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중국문화서원이었다. 그런데 중국문화서원은 최초로 베이징대학 당 지부의 감독 아래 놓일 위험이 있었다. 베이징 대학의 당 지도부가 그 사업을 대학원의 부속 사업으로 만들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의 자율성은 훼손될 것이 분명했다. 결국 중국문화서원은 《미래로》 총서와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 사업을 공식화 시킬 수 있는 '제휴'의 단웨이를 모색했다. 그리고 그 단웨이가 바로 바로 베이징시의 성인 교육국이었다.

## 5. 기회 구조의 형성과 잠재적인 동조자의 편제

문제는 진관타오 그룹이 향유했던 그 '제휴'의 정치적 자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사회과학원 청소년연구소는 진관타오 그룹이 동조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된 자원처럼 보인다. 진관타오 그룹과 청소년연구소를 이어 준 사람이 바로 탕뤄신이었고, 진관타오가 탕



뤄신을 알게 된 것은 1980년 허페이에서 개최되었던 학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미래로》 총서의 출판에서 중요했던 것은 청소년연구소 자체가 아니라 도리어 진관타오 그룹이 갖고 있던 네트워크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우선 린춘·리인허가 탕뤄신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1980년을 전후로 베이징의 대학가에서는 교외 인사들과 대학생들 사이의 방문교류 행사가 빈번했는데, 당시 국무원 연구실에 있던 리인허와 공청단 중앙에 있던 탕뤄신이 그 행사에 자주 함께 했다.<sup>27)</sup> 따라서 만약 《미래로》 총서의 출판에서 진관타오와 탕뤄신의 네트워크가 결정적이었다면, 《청년 문고》 역시 《미래로》 총서와 같은 운명이어야 했다. 탕뤄신을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가 총서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진관타오 그룹과 린춘·리인허가 갖고 있던 네트워크가 질적으로 달랐던 것이 아니다. 진관타오가 탕뤄신을 만났던 학회는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기했던 이른바 '3학(과학학, 인재학, 미래학)' 학회였는데, 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무려 300편에 달했고 참석 인원은 500명을 넘어섰다.<sup>28)</sup> 즉 학계 인사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공개 회의였다. 따라서 1980년의 허페이 학회는 진관타오 그룹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없다. 진관타오가 탕뤄신을 만나게 된 배경을 그 네트워크에서 찾으려면 안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시점이다. 진관타오가 탕뤄신을 알게 된 것은 1980년이었지만, 《미래로》 총서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간 것은 1981년의 여름이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청소년연구소가 설립 된 것이 1980년 12월이었고, 그 본격적인 활동은 1981년 초에 시작되었다. 즉 1980년에는 진관타오와 탕뤄신이 총서 출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27) 蔡曉鵬, <校園逸事三則>, 《敵机撒來的傳單》(南昌:百花洲文藝出版社, 2012), 147-148쪽.

28) 吳育群等主編, 《中國社會科學學術會議通覽1979-1990》(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2), 815쪽; 秦麟征主編, 《未來領域軟科學大全》(貴陽:貴州人民出版社, 1988), 766쪽.

청소년연구소가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사회과학원의 청소년연구소는 당시 부소장이었던 종페이장이 주도하여 설립한 기구였다.<sup>29)</sup> 그는 공청단 중앙의 연구실 주임과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의 편집을 겸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중국 청년들이 다양한 정치 운동에 연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국 청년들의 문제를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예컨대, 청년들의 신앙 부재나 권위의심, 실업 문제, 범죄율 상승, 이민 욕구의 만연, 자살율의 증가 등을 중국 사회의 중요 모순으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종페이장은 공청단과 중국사회과학원에 청소년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했다. 청년들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것이다.<sup>30)</sup>

그렇다면 진관타오 그룹의 동조자 모임이 특별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마찬가지로 《청년문고》의 네트워크가 진관타오 그룹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차라리 그 '제휴'의 정치적 자원은 진관타오 그룹의 활동과 상관없이 그들 외부에서 주어진 기회였다고 봐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에 청소년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공청단 중앙에 있던 탕뤄신이 연구소로 옮겨갔다. 그리고 진관타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기한 학회를 통해 탕뤄신을 만날 수 있었다. 게다가 새로 설립된 청소년연구소는 마침 청년 대상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다. 《미래로》와 같은 총서 사업을 청소년연구소 역시 필요로 했던 것이다.<sup>31)</sup> 결국 《미래로》 총서가 《청년 문고》와 달랐던 지점은 탕뤄신이나 청소년연구소가 아니라 이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기회 구조가 《미래로》 총서의 출판에서 결정적이었다.

《미래로》 총서가 누렸던 이 기회 구조를 단순히 '행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29) 이에 대해서는 劉鎰農, <開創對我國青少年的科學研究—憶中國社科院和團中央合辦的青少年研究所>, 《改革開放30年共青團工作回顧與研究文集》(共青團中央青運史檔案館編, 北京:中國青年出版社, 2009) 참조.

30) 鐘沛璋, <呼喚青年的創造力>, 《改革開放30年共青團工作回顧與研究文集》(共青團中央青運史檔案館編, 北京:中國青年出版社, 2009), 15-18쪽.

31) Chen Fong-ching & Jin Guantao, 앞의 책, 110쪽.

된다. 1980년대 초 중국 사회에는 청년 지식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대단히 많았고, 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 역시 넓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1980년의 허페이 학회는 중국미래연구회와 과학학전국위원회, 중국인재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자리였다. 그런데 이들 조직들은 모두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학술단체였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학술단체들이 붓물 터지듯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과학기술 영역으로만 한정해도, 1979년 한 해에만 24개의 신규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1950년부터 1965년까지 16년 동안 중국에 등장한 신규 학술단체 수는 25개에 불과했지만, 1977년부터 1989년까지 13년 동안 중국과학기술협회에 소속된 신규 학회의 수는 무려 104개에 달했다.<sup>32)</sup> 1980년의 허페이 학회는 그러한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다.

연구소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도 1980년대 초에는 놀랄 만큼 커지고 있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단히 많은 연구소가 1980년을 전후로 설립되었다. 기술경제연구소와 인구연구소, 사회학연구소, 소수민족문학연구소 등이 1980년에 설립되었고, 유럽연구소와 미국연구소, 일본연구소와 같은 지역학 연구소도 1981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에 따라 연구 인력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77년 중국사회과학원이 중국과학원에서 독립할 당시에는 그 인원이 2,227명에 불과했는데, 이듬해 1978년에는 3,000명을 넘어섰고, 1980년에는 4,000명을 넘어섰다. 1984년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 인원은 5,277명이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sup>33)</sup>

그렇다면 허페이에서 ‘3학’ 학회가 개최되고, 중국사회과학원에 청소년연구소가 들어서며, 신설 연구소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모색했던 것을 단순히 ‘행운’이라 할 수는 없다. 진관타오가 허페이에서 탕뤼신을 만나고, 《미래로》

32) 王國強, 앞의 책, 제1장 참조.

33) 당시 중국사회과학원의 기구 조정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책을 참조. 中國社會科學院院史研究室編著, 《中國社會科學院編年簡史 1977-2007》(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총서가 청소년연구소의 사업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확률 높은 '행운'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중국문화서원의 경우에도, 베이징시의 성인교육국이 '체휴'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는데, 이 역시 당시 새로 만들어진 기구 중 하나였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 구조가 중국 사회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진관타오의 인터뷰 내용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진관타오는 《미래로》 총서의 편집위원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총서 편집위원들이) 만나게 된 것은 분명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청년 및 중장년 지식인들이 이미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인들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중국 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 열정적으로 임했고, 동시에 중국 인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잡지 설립자나 《미래로》 편집인들은 이 넘쳐나는 지식인 그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sup>34)</sup>

같은 인터뷰 자리에서 류칭평은 이렇게 설명을 더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많은 무명의 젊은 사람들과 함께 놀랄만한 성취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나고요? 간단합니다. 출판계에서 종사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 덕분이었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편집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무대 위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를 격려해주었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선배 세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출판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sup>35)</sup>

www.kci.go.kr

34) Cheng Yingxiang, 앞의 책, 351쪽, 강조는 필자.

35) Cheng Yingxiang, 앞의 책, 362쪽.

결국 진관타오 그룹이 누렸던 기회 구조는 당시 보편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기회 구조가 《청년 문고》가 아닌 《미래로》 총서에게 작용한 것은 분명 '행운'이겠지만, 그 '행운'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높은 개연성을 안고 있었다. 만약 그 시대적 경향을 '시대정신'으로 부를 수 있다면, 《미래로》 총서의 출판은 그 '시대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시대정신'은 관념적인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기회 구조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미래로》 총서의 출판에 기여했다.

## 6. 나가며

《청년문고》와 《미래로》 총서의 출판 조건을 비교해보면, 둘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주도 인물과 핵심 자원, 네트워크 및 프레임 등에서 《청년문고》와 《미래로》 총서가 처했던 환경은 거의 유사하다.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청소년연구소를 '제휴'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는가의 여부에 있다. 《미래로》 총서는 청소년연구소의 사업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3급 심'을 자체에서 시행하여 편집위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었다. 반면 《청년문고》는 어디까지나 일부 젊은 지식인들의 비공식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제휴'의 정치적 자원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청년문고》와 《미래로》 총서의 운명을 갈랐다.

그런데 그 '제휴'의 정치적 자원은 사실 진관타오 그룹이 자체적으로 동원한 자원이 아니다. 진관타오와 청소년연구소의 연결 고리는 탕뤄신이었는데, 진관타오가 그를 알게 된 것은 1980년의 학회였고, 이 학회는 학계 인사에게 보편적으로 개방되어 있던 학회였다. 중국사회과학원에 청소년연구소가 들어서

게 된 것도 진관타오 그룹의 활동과는 무관했다. 게다가 청소년연구소 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었다. 요컨대 청소년연구소라고 하는 '제휴'의 정치적 자원은 차라리 진관타오 그룹의 외부에 형성되었던 기회 구조에 가까웠다.

이 기회 구조는 당시 중국 사회의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다양한 학회가 빠르게 조직되면서 새로운 만남을 촉진했고, 연구소 등의 기구가 여기저기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따라서 진관타오 그룹이 누렸던 그 기회 구조는 결코 예외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 초 중국 사회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에 속했다.

만약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업의 시대적 분위기를 '시대정신'이라 볼 수 있다면, 《미래로》 총서의 발간을 그 '시대정신'의 발현으로 부르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그 '시대정신'은 관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구조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통해 새로운 사조의 형성에 기여한다.

#### < 參考文獻 >

- 김도경, <1970년대 말 천얼진의 '무산계급 민주혁명을 논함'의 담론 맥락>, 《중국현대문학》 66호, 2013.
- 김도경, <개혁개방 시기의 문화적 기회 구조>, 《중국학논총》 제59집, 2018.
- 송인재, <1980년대 중국지식계의 '계몽기획'과 '계몽 성찰'>, 《시대와 철학》 제19권 4호, 2008.
- 양태근, <1980년대 중국 문화열의 재발견과 현장>, 《중국현대문학》 제43호, 2007.
- 클리퍼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1998.
- 황희경, <철저재건론자들의 중국문화 탐색>, 《시대와 철학》 제3호, 1992.
-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8.
- Chen Fong-ching & Jin Guantao, 《From Youthful Manuscripts to River Elegy》, Hong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7.

-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Social Movements>, 《Handbook of Sociology》, edited by Neil J. Smelser, Beverley Hills, CA: Sage, 1988.
- John H. D'Arms, <Funding Trends in the Academic Humanities, 1970-1995: Reflections on the Stability of the System>, 《What's Happened to the Humanities?》 edited by A. Kern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Rhys H. Williams and Timothy J. Kubal. <Movement Frames and the Cultural Environment: Resonance, Failure, and the Boundaries of the Legitimacy>.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1999(21).
- Scott Frickel · Neil Gross, <A General Theory of Scientific/Intellectu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05(70).
- Steven Shapin, 《A Social History of Truth: Civility and Scien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Terry Eagleton, 《After Theory》, New York: Basic Books, 2003.
- Cheng Yingxiang, 《Dégel de l'intelligence en Chine, 1976-1989》, Editions Gallimard, 2004.
- 蔡曉鵬, <校園逸事三則>, 《敵机撒來的傳單》, 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2012.
- 陳麗芳, 《“走向未來”叢書出刊研究》, 西南交通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傅世悌, <一切爲了飢渴者和盜火者——對《走向未來》叢書的一點回顧和思考>, 《中國出版》 1986年第10期.
- 共青團中央青運史檔案館編, 《改革開放30年共青團工作回顧與研究文集》,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09.
- 胡安全, <改革開放初期社會意識的嬗變與執政党的思想建設>,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8年第6期.
- 李湘魯外, 《歷史的沈思》, 北京: 三聯出版社, 1980.
- 林春, 《家國滄桑》,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馬國川, 《我與八十年代》,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1.
- 秦麟征主編, 《未來領域軟科學大全》,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8.
- 任新·欣悅, <《走向未來》叢書給我們什麼啓示?>, 《編輯學刊》 1986年 第4期.
- 蘇炯, <北京春寒怪異錄>, 《爭命》 1981年 第1期.

- 王國強,《二十世紀八十年代學會潮》,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2014.
- 王學典,〈“80年代”是怎樣被“重構”的?〉,《開放時代》第6期(2009).
- 吳育群等主編,《中國社會科學學術會議通覽 1979-1990》,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2.
- 許行,〈中國民間的屈起和掙扎圖存〉,《中國民間刊物彙編》,香港:香港觀察家出版社,1981.
- 徐友漁,〈我對80年代“文化熱”的回顧〉,《人物》2011年 第5期.
- 楊忠學,《我與書》,澳門:國際港澳出版社有限公司,2011.
- 中國社會科學院院史研究室編著,《中國社會科學院編年簡史 1977-2007》,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0.
- 周庚鑫·吳松主編,《歷史的必然與時代的坐標》,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2.
- 宗勝利,〈80年代“文化熱”研究綜述〉,《理論前沿》1996年第16期.

### < Abstract >

How Was the Series of 《Toward Future(走向未來)》 Published?: A Study on Mechanism of Emergence of New Intellectual Trends

Kim, Dokyung

As can be inferred from The Anti-Spiritual-Pollution Campaign(清除精神污染) of 1983, the political atmosphere of China in the early 1980s was still preventing the emergence of new intellectual trends in Chinese society. Nevertheless, the series of Toward Future(《走向未來》), influential in the 1980s Chinese society, was edited by Jin-Guantao(金觀濤) and published by Sichuan People Publishing House(四川人民出版社) in 1983.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series could be published.

By comparing *Toward Future* and *Youthful Manuscripts*(《青年文稿》), another series published in 1980 but soon banned by political force, the author claims that the political resource of alliance(掛鉤) was crucial to the publication



of Toward Future. However, according to the author's explanation, it was not because of Jin-Guantao's and his colleagues' ability to mobilize resources that they were able to acquire this political resource. Rather, the political resource were given to them from outside of them, and in that sense, it was more like an opportunity structure. More importantly, such an opportunity structure continued to grow in Chinese society in 1980s. It was an opportunity structu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fostered new meetings and new businesses in 1980s China and led to the emergence of new intellectual trends.

Key words: Jin-Guantao(金觀濤), 《Toward Future(走向未來)》, 《Youthful Manuscripts(青年文稿)》, Political resource of alliance(掛鉤), Opportunity Structure, Zeitgeis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0. 31	2018. 11. 19	2018. 11. 22	2018. 12. 2	2018. 12. 31

